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CULTURE & ART FOUNDATION	보도자료 Press Release	제공일자	2016. 12. 29
		제공부서	문화진흥팀
		연락전화	064-800-9155

아트큐브 전시관 2동 추가 제작
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어 4차 전시 진행
4차 전시는 이지현 작가의 '꿈꾸는 옷들', 'Dreaming book'

* 2차 전시 : ~ 2017년 1월 31일(화)
* 장 소 : 서귀포 치유의 숲
* 참여 작가 : 이지현
* 전시 작품 : 총 2점 ①꿈꾸는 옷들 – 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
  ②Dreaming book – 바다, 책 뜯다
* 주 최 : 제주문화예술재단

- 아트큐브공간여행사업, 더욱더 넓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이동형 전시관 2동 추가 제작
- 추가 제작된 전시관은 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어 전시 진행
- 4차 전시는 이지현 작가의 "꿈꾸는 옷들 - 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", "Dreaming book - 바다, 책 뜯다"

□ 제주문화예술재단(이사장 박경훈, 이하 재단)은 '이동형 컨테이너 전시관 아트큐브'(가칭, 이하 아트큐브)의 4차 전시를 2017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한다.

□ 아트큐브는 컨테이너로 제작된 이동형 전시관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술작품 전시공간이다. 더욱더 넓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12월, 2동이 추가 제작되어 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었다.

□ 4차 전시 참여 작가인 이지현은 일상의 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오브제를 만들어 그만의 의미를 부여한다.

□ 아트큐브 1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'꿈꾸는 옷들-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'로 작가는 실제 제주 도민들로부터 옷을 기증받았다. 개원 후 처음 입은 가운을 헤질때 까지 입었던 의사의 추억, 아이들의 옷 등 작가는 이 옷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옷에 묻어있는 개개인의 삶과 소통하였다. 또한, 이들의 삶이 전시관 안에 모임으로 이 시대의 제주 문화와 철학을 나타냈다.

옷은 한 개인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오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표적 오브제라 생각된다.

옷을 주신 분들은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보통의 분들이다.
고등학교 동기 성찬, 문화 해설사 김 여사님, 동료 작가 허정숙 선생, 문화예술과 오정은 선생, 치과병원 김 원장님, 버스서 만난 대학생, 익명의 동네주민, 학생 건영, 바리스타 김 씨....
다 거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옷을 받아 작업했었다.
옷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생각된다.
한 땀 한 땀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는, 옷을 주신 분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기도 한다.
또한, 일상적 옷이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노동으로 시각적 오브제로 재탄생되기도 한다.
작업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옷이란 오브제를 통해 만나
보다 나은 미래로, 제주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다.

□ 아트큐브 2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'Dreaming book – 바다, 책 뜯다' 이다.
작가는 제주 바다 인근에서 책을 읽고 작업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느꼈다. 그리고 스스로 '우리는 어디로 가는가?'라는 물음을 던졌다.
작가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인문학 책 한 장, 한 장을 뜯어 해체하고 뜯어낸 조각들을 다시 붙였다. 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상상의 바다로 떠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. 공중에 떠 있는 물체는 '배'이며 바닥은 '바다'이다.
지루히 책을 뜯다 문득 창 너머 섶섬이 눈에 들어온다.
점점이 떠 있는 몇 척의 배도 따라 들어온다.
잠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
내가 서귀포에 지난 1년간 지내왔음을 의식한다.
창 너머 새연교가 조명을 밝히고 30년째 노 화백이 치는 종소리가
오후 6시쯤 어김없이 들려온다.
난 오늘도 정해진 동선에 따라 매뉴얼화된 로봇 청소기처럼
작업실을 배회하다 늦은 시간 새연교 위 바람에 떠밀려오듯
차가운 숙소로 내려온다.
반납 기일이 임박한 책을 손에 들고 잠시 피로에 쌓인 몸을 싸구려 침대에 누인다.
며칠 전 눈보라 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성산의 먼 바다를 떠올린다.
오늘도 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
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빌려 타고 저 상상의 바다로의 여행을 떠난다.

□ 이지현 작가는 13여 회 이상의 개인전과 44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, 5차례 수상경력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한 7여 회의 레지던시 입주 이력을 가지고 있다.

□ 재단은 아트큐브를 통해 창의적, 실험적인 전시작가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전시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충하였다.

□ 또한, 전시관 추가 제작과 서귀포 치유의 숲 내 설치를 통해 이전보다 더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아트큐브 4차 전시 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블로그 (blog.naver.com/jcaf9814)에서도 볼 수 있다.

□ 4차 전시 개요

- 일정 : ~ 2017년 1월 31일(화)
- 장소 : 서귀포 치유의 숲
- 작가 : 이지현
- 작품 설명

	옷은 한 개인의 개성, 삶, 기억이 그대로 묻어 있다. 그것들이 모여 한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보여준다. 옷을 주신 분들은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보통의 분들이다. 옷을 한 땀 한 땀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는 옷을 주신 분과 끊임없이 교감한다. 일상의 옷이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시각적 오브제로 재탄생 되었다.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옷이란 오브제를 통해 만나 보다 나은 미래로, 제주로 함께 간다.
	지루히 책을 뜯다 문득 창 너머 섶섬이 눈에 들어온다. 점점이 떠 있는 몇 척의 배도 따라 들어온다. 잠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서귀포에 지난 1년간 지내왔음을 의식한다. 창 너머 새연교가 조명을 밝히고 30년째 노 화백이 치는 종소리가 오후 6시쯤 어김없이 들려온다. 난 오늘도 정해진 동선에 따라 메뉴얼화된 로봇 청소기처럼 작업실을 배회하다 늦은 시간 새연교 위 바람에 떠밀려오듯 차가운 숙소로 내려온다. 반납 기일이 임박한 책을 손에 들고 잠시 피로에 쌓인 몸을 싸구려 침대에 누인다. 며칠 전 눈보라 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성산의 먼 바다를 떠올린다. 오늘도 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빌려 타고 저 상상의 바다로의 여행을 떠난다.

* 문의 :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 부혜진 064-800-9155 / hj7300@jcaf.or.kr

붙임 1. 아트큐브 4차 전시 작품 사진